

국내 헤어 논문 외래어 오류 실태 분석

이영아¹, 이재숙^{2*}

¹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박사과정

²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교수

Analysis of Mistakes Made in Using Loan Words in Domestic Hairstyling-related Academic Papers

Young-a Lee¹, Jae-sook Lee^{2*}

¹Ph.D, Dept. of Beauty Science, Graduate Kwangju Women's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Beauty Science, Graduate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 약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헤어 미용 용어는 전 세계 미용 교육기관의 각기 다른 미용 용어가 뒤섞여 사용됨으로써 혼란을 주고 있다. 미용이 학문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하려면 외래어가 많은 미용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과제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헤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수집한 학위논문 1980건의 서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키워드 단어를 추출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맞춤법 검사기로 외래어를 분류한 후 잘못 표기된 단어를 추출, 알맞은 외래어 표기법을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헤어 미용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서명에서 발견된 외래어 오류를 분석한 결과 총 28단어의 표기를 오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용이 발견된 논문은 분류한 논문 208편 중 105편(50.48%)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헤어 미용 분야 연구자들의 미용 용어 외래어 표기의 사용실태를 세분화하고 분석, 검토함으로써 실제 오용 현황과 쟁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의 연구 결과가 미용 분야의 정확한 미용 용어 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미용의 학문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외래어, 헤어스타일, 학위논문, 단어, 오류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hairstyling-related studies and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studies on hairstyling terms through analysis of cosmetology-related loan words used in hairstyling theses among recent cosmetology papers. For data collection to derive valid conclusions, the signatures of a total of 1,980 academic papers collected after typing in the keyword ‘Hair’ at th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http://www.riss.kr>)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researchers in hairstyling seem not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correct use of foreign loan words. Therefore, the study results would be very helpful to the development of future cosmetology studies. The correct notation and use of foreign loanwords should be further encouraged.

Key Words : Foreign language, Hairstyling-related, Academic Papers, Words in Domestic, Error

1. 서론

학문은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의해 발전되어가며 논문을 통하여 지식체계를 형성해 나간다[1]. 지식체계를 형성해가는 논문의 연구 주제는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의

나열이며, 결과물인 학위논문의 서명은 그 분야에서 의미 있는 단어들의 함축이다[2,3]. 따라서 사소한 오류나 오용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단어나 용어의 개념이 맥락에서 적절하고 엄정하며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공적인 언어생활을 할 때 반

*Corresponding Author : Jae-sook Lee(ljs2379@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8, 2018

Accepted January 20, 2019

Revised January 7, 2019

Published January 28, 2019

드시 지켜야 할 말과 글에 관한 규칙인 어문 규범을 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어문 규범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포함된다. 이는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언어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한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작용하는 올바른 말과 글의 준거로 작용한다. 이 중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할 규범이고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할 규범이다. 그러나 외래어는 다양한 어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외래어 표기 규정에 대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온 국민이 외래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 표기의 오남용 같은 오류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4].

미용 산업에서 헤어 미용 분야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용 교육 대부분은 외국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미용 용어가 외국어 및 외래어로 표기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용 분야는 외래어 사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미용 용어의 통일성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5].

본 연구는 미용 논문 중 헤어 분야 논문의 미용 외래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용 실태를 찾아 분석함으로써 학문 활동의 도구가 되는 학문 용어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헤어 미용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연구될 헤어 미용 용어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외래어

2.1.1 외래어의 개념

외래어는 국어 어휘 중에서 외국어에 기원을 둔 말이라 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외래어란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래어는 본래 국어에 있던 어휘가 아니고 외국어에서 비롯되었지만, 국어의 일부로 인정된다[6]. 그리하여 발음, 형태 등이 본래 언어에서의 특징을 잃어버리고 국어에 동화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점점 늘어나는 외래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은 1933년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시작되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

행 외래어 표기법인 <외래어 표기법>[7]까지 이어져 왔다[8].

외래어는 어휘가 풍부해지고 시대 흐름에 동화되기 쉽게 한다는 장점과 오남용으로 우리말을 오염시킨다는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로 인해 외래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정확한 규정을 세워 올바른 표기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9].

2.1.2 외래어, 차용어, 귀화어의 구분

외래어의 범위는 위와 같은 귀화 과정을 밟아 나가는 단계에 따라 외국어(미조화어), 차용어(조화어), 귀화어(융합어)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외국어는 발음이나 뜻이 순 외국어의 모습 그대로 쓰이는 단계의 말이고, 차용어는 발음이나 형태 등이 어느 정도 국어적인 것으로 변화한 것으로 모국어화한 외래어를 말한다. 차용어는 그 단어의 외국어적 특징을 외관상 잃어버렸으며 국어화되었음을 말한다. 차용어는 고유어와 자유로이 결합하여 파생어나 복합어를 생성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귀화어는 아주 오래전에 들어와 외국어라는 특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한국 사회에서 고유어와 다름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쓰이는 말을 가리킨다.

2.1.3 외래어 표기 규정[10]

Table 1. Foreign language marking regulation

Foreign language	Rule
Normal	The foreign words are written in only 24 letters of Korean. [Foreign words (foreign language words) are written in 40 Korean characters, including 24 basic Korean alphabets allowed by Hangeul spelling and 16 alphabets based on them]
	One phonetic word of foreign words is written in 1 symbol in principle. [In foreign words, it is a principle to write the unit of phonemes in Korean instead of the mutation, there may be exceptions]
	It only writes ‘ㄱ, ㄴ, ㄹ, ㅁ, ㅂ, ㅅ, ㅇ’ on the base.
	As a rule, the plosive notation should not be used. [ㄱ/ㅋ/ㄲ, ㄷ/ㅌ/ㄸ, ㅂ/ㅃ/ㅍ] is called a plosive sound, and even if it sounds like a lone original sound,
	The already hardened foreign language respects tolerance, but its scope and usage are set apart.
English	The [ʃ] of the word is written as ‘시’.
	A compound word consisting of two or more words is written according to the notation used when the words that constitute it are used singly(pick 픽 + up 업 → 픽업(O), 피깅(X)).
	Of the short vowel followed by the short vowel are written in the foot. ([p], [t], [k]).
	The metaphysical plosion that comes before the end of the consonant and all the consonants is written with ‘으’.

2.2 영어권 오류 유형

2.2.1 1음운 1기호의 원칙

외래어 표기 규범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외래어를 표기할 1음운은 1기호로 표기되도록 되어있고,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표시하면 된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 하나의 모음이 다양한 음운에 대응되고 강세에 따라서도 발음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오류가 가장 많다.

예) 현 표기 >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

네비게이션>내비게이션(navigation), 넷탑>넛탑(nettop), 레코더>리코더(recorder), 솔루션>설루션(solution), 악세서리>엑세서리(accessory), 기니아>기니(Guinea), 마가렛>마거릿(Margaret), 아이러니컬>아이로니컬(ironical), 앤소니살빈>앤터니살빈(Anthony Salvin), 케이트 윈슬렛>케이트 윈즐릿(Kate Winslet) 등

2.2.2 무성파열음의 문제

무성파열음은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과 짧은 모음과 유음, 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경우는 받침으로 적고 그 외에는 한국어의 기본 모음인 ‘으’를 붙여야 하거나 각 경우에 대하여 오류가 나타난다.

예) 현 표기 >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

노샘턴>노샘프턴(Northampton), 칩셋>칩세트(chipset), 도미니크>도미니크(Dominic), 노퍽>노퍽(Norfolk), 엘리엇>엘리엇(Eliot) 등

2.2.3 중모음과 반모음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는 ‘아워’로 적는다. 반모음[w]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wə], [wɔ]로 적고, [wou]는 ‘위’, [wa]는 ‘와’, [wæ]는 ‘왜’, [we]는 ‘웨’, [wi]는 ‘위’, [wu]는 ‘우’로 적는다. 자음 뒤에 [w]가 올 때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gw], [hw], [kw]는 한 음절로 붙여 적어야 하나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단어들에서도 오류가 보인다.

예) 현 표기 >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

글로브>글로브(Globe), 로우디언>로디언(Lothian), 스톤헨지>스톤헨지(Stonehenge), 그위네드>귀네드(Gwynedd) 등

2.2.4 기타

위 경우 외에 어말의 [ʃ]발음, 어말의 -s[z]표기, 마찰

음 [s] 등의 오류가 나타났다.

예) 현 표기 >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

스타일리쉬>스타일리시(stylish), 콜린스>콜린스(Collins), 비너스 윌리엄스>비너스 윌리엄스(Venus Williams), 싸이클론>사이클론(cyclone) 등

2.3 헤어 미용 용어의 문제점

세계 여러 나라에 다양한 미용 교육기관이 존재한다. 이 중 미용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세계적 교육기관은 비달사순, 토니앤가이, 피부포인트, 존앤섹션 등 국제적인 명성을 갖춘 미용 교육기관이 있으며, 국내 교육기관은 아비다선, 사이리즘, 크리스기, 권홍 아카데미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헤어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각기 다른 브랜드의 교육기관에서 같은 개념을 제각각 다른 용어로 사용하여 헤어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미용 분야 중 하나인 헤어 디자인이 미용학으로서 인정받고 더 많은 발전을 하려면 부정확한 용어, 통일되지 못한 용어, 오용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헤어 디자인의 정합하고 체계적인 학문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초 학문에 입각한 헤어 용어의 통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미용 용어는 외국에서 주로 유입되어 외래어나 외국어로 표기되고 있으며 정확한 용어 표기의 통일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3. 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미용 논문 중 헤어 분야 논문의 미용 외래어를 분석함으로써 학문 용어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앞으로 헤어 미용 관련 연구의 질적 향상은 물론, 향후 연구될 헤어 미용 용어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11].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헤어 미용 분야 논문의 외래어 사용 실태를 분석한다.
- 2) 헤어 미용 분야 논문의 외래어 오류 실태를 분석한다.
- 3) 헤어 미용 분야 외래어의 올바른 사용법을 고찰한다.

3.2 자료수집

연구과제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2018년 04월 24일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헤어’라는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여 추출하였다.

‘헤어’를 입력하여 수집한 학위논문 2044건 중 서명에 ‘헤어’가 없거나 미용과 연관 없는 논문을 제외하여 602건을 추출하였다. 또한, ‘헤어’를 입력하여 수집한 학회지 논문 1934건 중 서명에 ‘헤어’ 단어가 없거나 미용과 연관 없는 논문을 제외한 1132건을 추출하였다.

3.3 연구방법

수집한 논문의 서명을 조사와 형용사, 부사 등을 제거한 후 명사만을 추출하는 형태소 분석 작업을 시행하였다. 핵심단어 추출 및 구조분석의 단계에서는 키워드 분석 프로그램인 Word Process/Repor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키워드 단어를 분석하였다. 키워드 단어 추출 후 국립국어원홈페이지(<http://www.korean.go.kr>)에서 제공하는 맞춤법 검사기로 외래어를 분류하였다.

분류한 외래어 중 잘못 표기된 단어를 추출하여 알맞은 외래어 표기법을 분석하여 표기하였으며, 외래어 오류 양상과 실태를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잘못 표기된 헤어 미용 논문 외래어 분석 결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riss.kr)를 통해 수집한 ‘헤어’ 관련 학회지 논문의 서명을 대상으로 키워드 단어들의 출현빈도를 분석하고 키워드 단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www.korean.go.kr>)에서 제공하는 맞춤법 검사기로 외래어를 분류한 후 같은 뜻과 용어인데 표기를 잘못된 외래어를 다시 구분하여 올바른 표기를 분석하였다. 헤어 미용 논문 서명 외래어 오류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헤어 미용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서명 외래어 오류 분석 결과 총 28단어의 표기를 오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용이 발견된 논문은 분류한 논문 323편 중 128편(39.62%)이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Fig. 1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헤어’ 분야 연구자들이 외래어 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헤어 관련 외래어 표기는 커트(22%)와 퍼머(22%)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슝(19%), 컬러(13%), 트렌드(11%), 프랜차이즈(8%), 아이론(3%), 비주얼(1%), 오트 쿠튀르(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헤어 미용 논문 외래어 사용 오류 실태분석

위의 헤어 미용 논문에서 잘못 표기된 외래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면 논문 연구자들에게서 나타난 오류 형태들은 영어와 한국어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일종의 언어 간 부정적 간섭(negative interference)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오류를 모음, 자음, 음절 구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실제 사용에서의 오류는 다음 Table 3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3. Hair beauty papers Foreign word collection error

vowel	Hair beauty article error	Examples of major errors
ㅣ	ㅏ, ㅑ	Gradation 그라데이션 → 그라데이션 Color 컬러 → 칼라 Total 토틸 → 토타 Fractal 프랙탈 → 프렉탈 Front 프런트 → 프론티 Anthony 앤터니 → 안토니 Pivot 피벗 → 피봇
ㅍ	ㅍ, ㅑ	Natural 내추럴 → 네추럴 Manicure 매니큐어 → 메니큐어 Dynamic 다이내믹 → 다이내믹
ㅑ	ㅑ	Collection 컬렉션 → 컬렉션 Trend 트렌드 → 트랜드
ㅣ	ㅑ	British 브리티시 → 브리티쉬
ㅑ	ㅑ	Shop 슝 → 샵
ㅑ	ㅑ	Studio 스튜디오 → 스투디오

Table 4. Hair beauty papers Foreign word collection error

Consonant	Hair beauty article error	Examples of major errors
ㄱ	ㄱ	Collage 콜라주 → 플라주
-	ㄱ	Romanticism 로맨티시즘 → 로맨틱시즘
ㅅ	ㅅ	Basic 베이식 → 베이직 Casein 카세인 → 카제인
ㅍ	ㅍ	Petit 프띠 → 뽀띠
skip	-	Staff 스테프 → 스텝 Stroke 스트로크 → 스트록 Corsage 코르사주 → 코사지
ㅅ	ㅑ	Androgen 안드로젠 → 안드로겐
ㅑ	ㅑ	Antoinette 앙투아네트 → 앙뜨와네뜨
ㅑ	ㅑ	Cut 커트 → 컷

4.2.1 모음 오류

1) /ㄷ/를 /ㅌ/로 표기 오류

외래어 표기법에서 [ɹ, ə]는 /ㄷ/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의 [ɹ] 발음은 한국어에 일치하는 음이 없고 [어]와 [아]의 중간쯤에서 나는 발음과 비슷하여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헤어 미용 논문을 집필한 연구자들은 실제로 [ɹ]를 /ㄷ/로 오용 표기하고 있었다.

2) /ㄷ/를 /ㅌ/로 표기 오류

한국의 헤어 미용 논문을 집필한 연구자들은 영어의 [ou, ɔ]를 [o]로 인식하고 있었다. [o]는 한국어의 /ㅌ/와 거의 비슷하지만 원순성이 /ㅌ/에 비해서 적어서 한국의 헤어 미용 논문을 집필한 연구자들은 /ㅌ/와 /ㄷ/를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해당 연구자들은 혀의 높낮이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높이에서 발음되는 /ㅌ/와 /ㄷ/에 대한 변별력이 낮아서 /ㅌ/와 /ㄷ/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 /ㅌ/를 /ㅌ, ㅌ/로 표기 오류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æ]를 /ㅌ/로 표기한다. 하지만 한국의 헤어 미용 논문을 집필한 연구자들은 [æ]를 [a]로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표기 규칙을 오용하여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영어의 영향으로 /ㅌ/를 /ㅌ/로 잘못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4.2.2 자음 오류

1) 평음·격음·경음의 구분 오류

한국의 헤어 미용 논문을 집필한 연구자들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평음, 격음, 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을 모두 평음으로 인식하여 잘못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음 계열의 자

음을 가장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음절 구조 오류

한국의 헤어 미용 논문을 집필한 연구자들은 음절 구조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였는데 이는, 영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음절 초에서는 자음이 세 개, 음절 말에서는 자음이 네 개까지 허용되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자음이 연속해서 두 개 이상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자음이 연속하는 경우에 한국어의 기본 모음인 ‘으’ 모음을 삽입하여 CVCV(자+모\$자+모)로 나타내기도 하고,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한국의 헤어 미용 논문을 집필한 연구자들은 영어의 장음을 살려서 표기하려는 시도를 통해 미용 용어들을 잘못 표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용의 근본 원인은 두 언어가 가진 음절 구조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4.3 헤어 미용 용어 외래어 오류 고찰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헤어 미용 분야의 연구자들이 ‘헤어’ 관련 용어 표기를 오용하는 이유는 외국어로 되어있는 미용 용어를 외국어 발음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마다 체계끔 다른 용어가 사용되어 혼란을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올바른 외래어 표기 교육이 미흡하여 오류를 제때 적절히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4.3.1 헤어 미용 분야의 교육기관 별 용어

세계 여러 나라에 다양한 미용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된다. 이 중 우리나라 미용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해외 교육기관으로는 비달사순, 토니앤가이, 피뮤편트, 존앤섹션 등 국제적인 명성을 갖춘 미용 교육기관이 있으며, 국내 교육기관으로는 아비다선, 사이리즘, 크리

Table 5. Cutting Term Differences by Educational Institutions[15]

Terms of the cut	Vidal Sassoon	Pivot point	Tony & Guy
Position of hand in cut procedure	Hand Position	Free From Sculpting	Free Hand
Baseline for cutting	Base Line	Design Line	Guide Line
	Isadora	Back Before Grduation	Back ward
Divide the head in half by midline	Centre Section	Centr Part	Profile Section
Cut of re-confirmation work after cut	Cross Checking	Cross Check	Check Balnce

스기, 권홍 아카데미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헤어 디자인과 관련된 용어는 각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마다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용어를 개발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므로 그들만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일반 연구자들이 사용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 혼란과 오용을 낳는 상황이다.

Table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같은 내용의 용어라 할 지라도 각 교육기관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내용과 각 기관의 저작권으로 인한 용어 사용이 어렵다는 점으로 볼 때 현재 헤어 미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3.2 외래어로 구성된 헤어 미용 용어

헤어 미용 용어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제하거나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미용사(일반) 출제 기준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의 출제 기준으로 국내 미용을 공부하는 미용인들이 모두 공부해야 하는 용어이지만 대부분이 외국어를 변환한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었다.

아래 Table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 사용되는 용어에서도 한국어와 외래어를 혼용 표기하고 있으며, 각 교육기관별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사용에도 오류가 나타났다. 그 예로 매뉴얼이라는 용어는 매뉴얼(X)로 표기되어 올바른 표기인 매뉴얼(O)을 따르지 않았으며, 핸들링이라는 용어는 핸드링(X)으로 표기되어 올바른 표기인 핸들링(O)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그라데이션(X)로 오용 표기된 그라데이션(O)이라는 용어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펌(X)이나 퍼머먼트 웨이브(X)라는 용어는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퍼머(O)라는 용어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어 실제로 국가 기관에서도 외래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렇듯 무분별한 외래어의 사용으로 인해 헤어

미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미용 논문 중 헤어 분야에서 사용된 미용 관련 외래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향후 헤어 미용과 관련된 외래어의 올바른 사용을 통한 연구의 질적 향상은 물론, 헤어 미용 용어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헤어 미용 용어는 전 세계의 유명 미용 교육기관이 각기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학문 활동에 혼란을 주고 있다. 미용이 학문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하려면 미용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부정확한 용어, 통일되지 못한 용어, 오용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헤어 디자인의 정합하고 체계적인 학문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초 학문에 입각한 헤어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기초 학문 중 외래어가 많은 커트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미용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용 용어는 주로 외국 교육기관에서 유입되어 외래어나 외국어로 혼용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바른 용어 표기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헤어 미용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서명에서 발견된 외래어 오류를 분석한 결과 총 28단어에 대한 표기를 오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용이 발견된 논문은, 분류한 논문 323편 중 128편(39.62%)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연구자들이 ‘헤어’ 관련 용어 표기를 혼용하는 이유로는 외국어로 되어있는 미용 용어를 발음대로 표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된 각기 다른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그 용어들을 분별하지 않고 교육과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헤어’ 미용 연구자들의 외래어 표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학위논문 심사자인 미용 교육 전문가들의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주의가 깊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미

용 용어를 표기할 때 올바른 외래어 표기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미용 용어 외래어 표기는 규범으로서 외래어 표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법에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미용 전공자들에게 미용 용어 사용 시 단어사용과 선택에 있어 혼동과 혼란을 주고 있다. 외래어 오기를 접하는 헤어 미용 연구자들은 맞춤법에 맞는 외래어 표기법을 익히더라도 실제 미용 분야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잘못된 외래어 표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미용 용어들을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게 사용해 왔고, 당장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끔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해 왔던 용어와 충돌이 생기거나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미용 용어의 재정비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지만, 일반화된 용어들을 재정리하여 표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헤어 미용 분야 연구자들의 미용 용어 외래어 표기 사용 실태를 세분화하고 분석 검토하여 사용 실태 및 현황과 쟁점을 도출하였다.

미용 용어의 체계와 확립을 위한 후속연구로는 논문의 서명뿐만 아니라 학위논문, 학술 분야별 등 주제어에 대한 분석, 논문 요약 분석, 목차 분석, 더 나아가서는 본문의 분석 등 헤어 분야뿐만이 아닌 미용 전체분야를 대상으로 더욱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를 발전시켜 헤어 미용 용어의 외래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논문이 작게나마 미용 분야의 정확한 미용 용어 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미용의 학문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S. B. Kang. (2003). Trends and Future Tasks of Korean Sport Education Research.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ports Education*, 10(3).
- [2] S. Y. Lee. (2013). *Bibliographical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Scalp Sector*. Master Thesis. Seoul Venture University, Seoul.
- [3] S. Y. Lee. (2014). *Bibliographic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hair care*. Master Thesis. Seoul Venture University, Seoul, 3.
- [4] H. S. Na. (2010). *Actual Condition of Foreign Language Wording of Korean Learners and Educational Pla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G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 [5] J. H. Kim. (2009). *Analysis of the use of terminology in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textbook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Sport Sciences, Seoul.
- [6] H. S. Na. (2010). *Actual Condition of Foreign Language Wording of Korean Learners and Educational Pla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G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 [7] Ministry of Culture Education and Tourism (1986). *Foreign language notation*.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85-11.
- [8] J. S. Hwang. (2006). *Foreign language notation study*. Master Thesis. Dankook University, Gyeonggi-do Province, 9.
- [9] J. S. Hwang. (2006). *Foreign language notation study*. Master Thesis. Dankook University, Gyeonggi-do Province, 9.
- [10] B. G. Gu. (2010). Influence of foreign word marking nor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11] H. J. Moon. (2012). *Analysis of the use of terminology in textbooks of specialized high school hairdressing textbooks*.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Gyeonggi-do Province.
- [12] G. M. Lee. (1994). *Donga New Korean Dictionary*, Donga Publishing Company.
- [13] M. S. Kim. (1993). *The Grand Language Dictionary*, Geumsung Publishing Company.
- [14] The Korean Language Society. (1997). *Korean dictionary*, Eomungak.
- [15] S. B. Kwon. (2010). *Comparison of Cut Terms Used in Korean Haircuts*.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Seoul, 4-84.
- [16] Korea Industri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rporation. (2016). *Standards for hair dresser(General) (2016.7.1~2020.12.31.)*. Qualification Innovation Bureau Qualification Analysis Team. Q-net Reference Data Room, 1-7.
- [17] J. J. Son. (2010). *A Study on Error Analysis and Teaching Method of Foreign Language Words: Focusing on Chinese Learners*.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Incheon University, Incheon.

이 영 아(Lee, Young-a)

[정회원]



- 2005년 2월 : 제주한라대학교 뷰티아트과(학사)
- 2007년 2월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학사)
- 2015년 8월 :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교육과(미용교육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대학원(박사재학)
- 2017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헤어디자인
- E-Mail : duddk6929@hanmail.net

이 재 숙(Lee, Jae Sook)

[정회원]



- 1977년 2월 : 부산신라대학교 사회교육학과(학사)
- 2003년 8월 : 조선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뷰티디자인학석사)
- 2007년 8월 :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학박사)
- 2018년 2월 : 광주대학교 대학원 뷰티미용학과(미용학박사)
- 2007년 2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헤어미용/헤어디자인 /두피·탈모 관리
- E-Mail : ljs2379@hanmail.net